

新年辭

전대미문의 감염병,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상서로운 흰 소의 해다. 우리에게 소는 예로부터 한식구나 다름없는 재산목록 1호였으며 풍요와 행운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 상서롭다는 흰 소의 영험함이 코로나와 경제난 및 진영 갈등 등으로 시름겨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져다주기를 기원한다.

새해를 열며 되돌아보는 지난해의 장상은 어둡기만 하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일상엔 그 끝을 알 수 없는 '일단 멈춤'으로 영망이 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경제도 치명타를 입고 휘청거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 등으로 최대의 피해자가 됐다. 기업의 가동 중단이 반복됨으로써 수출·생산·투자·고용 지표 역시 줄줄이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정 사상 최다인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광주·전남에서도 18석 전체를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거대 여당은 막강한 의회 권력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우면 싸움은 국면을 짜증나게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격렬한 윤 총장에 대한 '정적 2개월'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다.

지난해 부동산 문제는 내내 이슈가 됐다. 서울에서 시작돼 수도권을 넘어 광주 등 지방으로 번

진 부동산 광풍.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투기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로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전세난도 심화됐다.

그러나 이제 새해다. 모든 것을 털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뭉치 뭉치 해도 가장 절실한 과제는 코로나 조기 극복이다.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봉쇄나 이동 제한 등을 하지 않고도 신속한 검사-추적-조사-치료로 상당 기간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전적으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

하지만 지난 연말 3차 대유행 과정에서 확진자

사회 보장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본격 논의할 시점이다. 감염병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변한 선언'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면밀한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류 역사가 코로나19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미 오래 전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기초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늘 해 오던 방식과 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의 뉴딜 정책에 맞춰 광주·전남 지역도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디지

다시 돌이켜 보면 지난해 소기의 성과도 없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을 출범시켰다. 완성차 공장을 착공하고, 인공지능(AI)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집적단지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빛그린국가산단 등 네 곳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 역시 6년 연속 전국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고 245개 기업과 4조 9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는 등 일자리·투자 유치에서 큰 결실을 거뒀다.

하지만 공황 이전 문제와 혁신도시 등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한 뿌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양 지역 간 감정 of 풀을 갈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지방정부와 도시

맺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과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줄줄이 취소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나마 연말 들어 역사왜곡 처벌, 진상 규명, 유공자 예우 등을 위한 이른바 '5·18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토대로 5·18 진상 규명조사위원회는 발표 명령자 등 핵심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해 5·18의 역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와 민선 8기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치러진다. 어느새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민주주의의 심장인 호남을 대변하는 개혁 정부의 창출과 호남 정치의 부활을 위해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를 이겨 내고 이후 다가올 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80년 5월 그날처럼 나눔과 연대, 상상과 통합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닐까. 더불어 소피해를 맞아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시대의 변화를 꿰뚫어 보면서도 소처럼 우직하게 행동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뚜벅 뚜벅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올해로 창사 69주년을 맞는 광주일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도약의 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해 광주·전남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는 한편 지역민의 여론을 충실히 대변할 것을 다짐한다. 새해 아침,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연대와 상생으로 코로나 이겨 내고 새 시대를 준비하자

가 1000명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역 체계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병상이 부족해 수백 명이 자가 격리하며 대기하거나 숨지는 사태까지 속출했다.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방역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따라서 공공 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하루빨리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공공의료원 설립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감염병 위기 때마다 맨 먼저 희생을 강요당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대신 기본소득이나

탈 경제 전환 등 사회 전반의 대혁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91년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은 국토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희망의 불빛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낙후 지역은 되레 쇠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이다. 더욱이 전남은 저출산·고령화로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 아닌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의 광역화 추세에 발맞춰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지역 미래 경쟁력 확보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이뤄지다 보니 혼란만 거듭됐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1년간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따져 보자는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이마저 군 공황 이전을 민간 공황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광주시의 결정에 전남도의회가 용역 예산을 삭감하면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우리는 여기서 양 시도가 소지역주의를 탈피,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지자체 간 무한 경쟁의 시대라지만 광주·전남마저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긴다면 지역 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콜레라·말라리아·독감·에이즈 등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수많은 전염병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黑死病)과 지금은 박멸됐지만 적사병(赤死病)이라고도 부르던 천연두가 아닐까 한다.

흑사병은 페스트균을 벼룩이 쥐로부터 사람에게 옮기는 병으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키면서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대동시켰다. 따라서 역사를 바꾼 전염병이라 하겠다. 흑사병은 14세기 중앙아시아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하여 몽골군이 서쪽으로 침략할 때 퍼졌다. 1346년 몽골군은 흑해 북쪽 제노바 무역 기지 카파를 포위 공격하면서 흑사병으로 숨진 흉측하게 썩은 시신을 성벽 안으로 던져 넣어 적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생화학 테러의 원조인 셈이다. 그 시체에 있던 페스트균은 벼룩을 통해 쥐에게 옮겨갔고 그 쥐는 상인들의 화물선에 무인 승선하면서 이탈리아반도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배고픈 고양이들이 쥐들을 열성적으로 공격한

쥐의 해 가고 소의 해 오라

덕분에 흑사병은 조금 주춤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불태워 없애기 시작하면서 마르세이유에서는 고양이 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해 쥐들은 대거 흑사병을 퍼뜨렸다. 마침 수년간의 대기근으로 허약해진 유럽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유럽 사회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절대 진리로 군림하던 가톨릭교회조차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회개하고 고행을 하거나, 반대로 종교를 버리고 '어차피 죽을 것. 죽기다 죽자'며 쾌락주의로 빠져들기도 했다. 전염병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염자·유대인·이교도·한센병 환자를 악마로 몰아 화형시켰다.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노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장원제도도 붕괴됐다. 이어 중세를 지배하던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르네상스가 싹트기 시작했다. 쥐들이 퍼뜨린 흑사병이 중세를 무너뜨린 것이다.

흑사병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무서웠던 전염병으로 천연두가 있다. 천연두는 오랜 기간 인류를 괴롭혀 왔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미라에도 천연두 마마 자국이 남아 있다. 수백 명에 불과한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것도 우수한 무기보다는 신대륙에 옮겨 간 천연두가 원인이었다. 18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 매년 40만 명이 천연두로 죽었으며 감염자의 20~60% 특히 소아는 80%가 사망한 무서운 질병이었다. 살아남아도 얼굴에 마마 자국이 남거나 또한 합병증으로 실명하기도 하는데 18세기 런던 수용소의 시각 장애인 중 2/3는 천연두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 천연

두가 1979년 지구상에서 영원히 박멸되었다. 거기에는 소가 큰 역할을 했다. 예로부터 천연두를 막기 위한 시도로 천연두 환자의 고름 딱지를 피부나 코에 접촉하는 인두법이 중국·인도·아프리카 등에서 시행되었지만 인두법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감염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그런데 영국의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소젖 짜는 여인들이 우두(牛痘)를 앓고 나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두를 접촉하면 소가 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어 우두 접촉은 쉽지 않았다. 드디어 1796년 5월, 소젖 짜는 여인 사라 넬름즈의 손에서 채취한 우두 고름을 하인의 아들 8살 제임스 필스의 팔에 접촉했다. 이후 2개월 지나 천연두 고름을 접종시켜 봤지만 천연두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왕립 협회에 보고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제너는 자비로 우두법에 대한 논문을 발간하며 홍보했고, 많은 시간이 지난 끝에 인증을 받았다. 제너는 자신의 이 예방 접종법을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가져와 '백신'(vaccine)이라고 명명하였다. 암소 덕분에 전 인류는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쥐의 해 2020년이 지나가고 소의 해 2021년이 밝았다. 쥐의 해에는 쥐가 퍼뜨린 흑사병만큼이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인류가 힘들었다면, 소의 해에는 소(vacca)로부터 시작된 백신으로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기를 기원해 본다.

희망찬 새해!

無等鼓

지난해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사망자가 쏟아지자 기사 대신 '부고' 알림만으로 면을 가득 채운 신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뉴욕 타임즈가 지난 5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10만 명 중 1천 명의 부고로 1면을 채웠던 것이다. 또 다른 신문은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자 스포츠 면을 하얗게 비운 '백지 편집'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현 대사의 최고의 명문장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모두 그 내용을 기억

새해에는

아이와 숨지자 '세살 아이 받아 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 등도 종이신문의 존재 이유를 말해 주는 멋진 편집이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을 다신 글자로 표현한 '조선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약세 오만에 패했을 때 '오만이 아니라 자만이 졌다', 맨홀 뚜껑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자 '강철 심장 고철 도둑' 등은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제목으로 10년 넘게 회자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2019년 한국이 U-20 월드컵에서 결승에 진출하자 끝내볼 수상자 이강인의 이름을 활용해 만든 '2강 in',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2위를 한

SK가 한국시리즈에서 두산스를 꺾고 우승했을 때의 'SK 뒤집다 KS' 등의 제목도 절묘한 언어의 조탁으로 빛이난 탁월한 작품이다.

소크라테스·히포크라테스 등 수천 년 전의 철학자나 의학자를 불러내야 간신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데스 행'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일까? 새해에는 멋진 편집으로 코로나에 지친 독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나눔 온정 더욱 뜨거워지는 새해 되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해 초 '착한 임대인 운동' '현열 동참 운동' 등 모두의 온정과 배려, 노력으로 지금까지 감염병 사태를 버텼다. 곧 끝이 날 것으로 굳게 믿었던 희망은 '100년 내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전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놨다. 지역경제와 사회가 썩 썩 얼어붙어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은 어느 해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이웃들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록 풍둔과 미미한 물품이지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부와 나눔의 손길을 펼쳐 왔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해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거액을 기부해 온 카디리 아저씨의

익명 기부 기사를 읽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한 '10년간 10억 기부'의 약속을 지켰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며 위기 때마다 기부 약속을 권유하는 직원이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수익의 일부분을 떼어 놓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나눔을 이어왔다고 한다.

열 사람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 다른 사람을 위해 밥 한 그릇을 만든다는 뜻의 '십시일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여럿이 힘을 합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카디리 아저씨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박석열·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예를 위치는 매일 나에게 하루 운동 목표, 하루 칼로리 소비 목표, 하루 일어서기 목표를 제시한다. 목표를 달성한 날은 마음이 활기차다. 하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한 날들이 훨씬 더 많다. 핑계거리가 될 만한 명분이 있는 날은 목표가 못 미치는 수치를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핑계거리가 없는 날은 '내일은 꼭...' 하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신공을 발휘한다. 문제는 어제 같은 날이다. 나를 열심히 걸었다. 당연히 오는 목표는 달성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 시간이 되어도 목표지가 간당간당하게 탁걸이다. 자기도 못하고 투덜투덜하며 방안을 왔다 갔다 걸었다. 손목시계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눈에 뵈는 보이는 수치가 움푹딱딱 못하는 내가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과감하게 무시하지도 못한다.

애초에 예를 위치는 협업을 자기 위해 샀는데 그런 기능은 지원되지 않았다. 사고 나서 보니 내가 산 이유는 '그냥' 사고 싶어서 산 것이었다. 협업을 재겠다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명분이었다. 어쨌든 실제로는 하루 운동량을 점검하는 용

당신의 욕망은 편안합니까?

도로 쓰이고 있다. 이런 생각지도 않은 용도다. 덕분에 어제처럼 내가 정하지도 않은 하루 운동량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예를 위치에 구속되어 사는 셈이다. 그런데 누가 나의 삶을 구속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이외엔 없다.

목표란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위해 준비한 구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없는 삶은 불안하고 공허하다. 목표란 과거의 내 안에서 요동쳤던 욕망의 흔적, 욕망의 잔재, 욕망의 겹대기이다. 과거의 욕망이 현재의 나를 구속한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나를 구속한다. 구속되는 나는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핑계를 욕망하고, 욕망은 목표를 만들고, 목표는 다시 나를 구속한다. 목표가 없는 삶은 타인과 비교해 봐도 두말할 것 없이 꼴리다. 뒤쳐지는 느낌은 더더욱 나를 불안하게 한다. 불안은 현재의 나를 채찍질한다. 불안이 만든 상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고통의 자리에서 욕망이 짙들거리며 자라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불안이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로 이 불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한 것은 인간에게는 존재해야 할 이유, 사명, 목표 같은 것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다.

의자는 사람이 앉는 것, 침대는 사람이 자는 것이라는 그 나름의 본질이 있다. 즉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그것에게끔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사람이 특정한 용도를 위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든 것이니 당연히 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 사과는? 인간은 사과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사과

라고 불리는 순간, 그 무엇인가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부여된다. 사과는 인간에게 먹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여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 주변 모든 것을 대상화한다. 즉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 그리고 목적을 부여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부여한다. 대상화하는 것은 욕망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작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인간은 '그냥' 존재한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보니 어떻게든 존재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그렇게 했듯 자신에게도 목표와 존재 이유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도 대상화한다. 자신을 대상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교를 통한 객관화이다. 그러니까 나는 키가 165센티미터다. 나는 차가 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이런 식이다. 인간이 주변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심지어 자신까지 대상화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삶 자체가 이미 불안이다. 우리네 삶 자체가 고통이다.

내가 한낱 손목시계 같은 것의 눈치를 보는 것도 이 불안한 욕망 때문이다. 도대체 사는 게 뭔지, 왜 사는 건지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질문의 대상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하는 자신을 찬찬히 느껴 보라. 그게 답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